

# 2010년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대전 MBC

## 2010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 1. 회의 개최

가. 일시 : 2010년 1월 27일(수) 15:00

나. 장소 : 대전MBC 대회의실

다. 참석자 (총 - 15명)

\* 시청자위원 : 7명 (총인원 10명)

- 불참 : 송용호 위원, 정윤모 위원, 김경숙 위원

\* 대전 M B C : 8명 (유기철 사장, 강덕원 인프라본부장, 박선자 방송본부장, 박재현 디지털센터장, 김미리 편성제작센터장, 서영석 뉴스센터장, 이상현 전략기획실장, 김윤미 전략기획실 사원)

### 2. 심의 결과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사항

단위 : 건

방송편성	방송프로그램 내용					자체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1	10		5			26

나. 기타사항

- 시청자 평가원 선임 : 해당사항 없음

-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해당사항 없음

### 3. 제시 의견 활용 실적

제시 의견	활용 실적	비고
총 12건	총 10건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송되길 바람.	- 본사 올해 주요 기획을 <희망 2010, 힘내라 지역경제>로 정하고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지역 여행업계 회복 기대감, 폐열 재활용 등 경제관련 뉴스 비중도 높였고 특별기획 '경제전쟁시대' 를 주제로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특강을 2차례 방송함(본방송 1/20, 재방송 2/4일)	2009년 12월 제시의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효과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12/30일 뉴스데스크 연말 기획을 통해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반나절 생활권 구축, 기업 입주, 관광객 방문 등 경제적 효과를 점검해 방송함	"
처음엔 어둡고 우울했던 '하늘동네 이야기' 가 후반 들어 희망을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음. 계속해서 희망적인 내용을 전해주길 바람.	- 2009년 1월 시작한 하늘동네 이야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2009년 12월까지였던 당초 방송 계획을 올해 1월 말까지 연장함.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정리한 마지막 방송이 1월 28일 전파를 뒀으며 2월 말 특집 다큐 '하늘동네, 365일간의 희망 기록' 이 방영 예정	"
대외 수상한 많은 프로그램이 대전MBC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면 좋을 듯하다.	- 그동안 다른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했지만 앞으로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공지사항, 사이버 홍보실을 활용해 수상 프로그램과 제작진을 집중 소개해 좋은 프로그램 알리기에 나설 계획임	"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총 0 건	매월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매월 당사 홈페이지([www.tjmbc.co.kr](http://www.tjmbc.co.kr))에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하고 있음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 변동사항 없음

## 5. 주요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처리결과
보도	<p>① 세종시 수정 논란, 6월 지방선거 예정된 만큼 특히, 보도 부문에서 관심 갖고 공정방송 바란다. 또, 선거 보도는 대전시와 충청도 16개 시·군별로 단체장의 공약과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하고, 기계적인 중립은 물론 의도치 않은 내용의 편향성까지 주의했으면 한다.</p> <p>② 흥성 구제역 의심 신고 농가 보도와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를 놓고 서울과 대전의 오전 7시 라디오 뉴스와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랐다. 앞으로는 실시간 사실 확인에 더 힘써 이같은 일이 없어야겠다.</p> <p>③ 뉴스 특히,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날씨가 출근길 상황 등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시의적절한 클로징 멘트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한다.</p> <p>④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도로의 안전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한다. 실제 차로 일부분을 자전거 전용 도로로 만들면서 자동차와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p> <p>⑤ 대전MBC 올해 기획이 ‘희망 2010, 힘내라 지역경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청년 창업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적 기업 필요성 등도 점검하면 좋겠다.</p>	<p>⇒뉴스센터에서 세종시와 선거 특별취재팀 구성해 집중 보도할 계획이며 지역별, 사안별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약 등을 알리고 화면 편집에서도 철저한 공정성을 지켜나갈 예정임.</p> <p>⇒뉴스센터 기자들에게 공지해 야근자들이 밤사이 변동된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시사프로그램도 실시간 뉴스 확인에 더욱 신경 써 재발하지 않도록 함.</p> <p>⇒1월 28일부터 뉴스투데이 임세혁 앵커가 클로징 멘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p> <p>⇒해빙기 이후인 3월 중으로 기자가 직접 자전거를 타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는 르포 형태로 보도할 계획임.</p> <p>⇒뉴스를 통해 ‘다시 뛰는 지역경제’와 ‘땀 흘리는 사람들’ 등 경제와 관련해 지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중 기획 보도를 방송할 예정임.</p>

<p><b>교 양</b></p>	<p>① 올해 ‘대전.충청 방문의 해’와 관련한 전체적인 기획 프로그램 현황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으면 한다. 충청권에는 대표적 관광지 많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런 인식을 바꿔주길 바란다.</p> <p>② 집중토론 주제가 지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아 공감 가는 부분 적고, 진행자가 아직 불안해 보이고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다. 시민패널의 경우, 토론자 바로 뒤에 앉으면서 토론자들과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다 집중하지 않거나 조는 모습까지 화면에 담기고 있어 개선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p> <p>③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을 지역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지역방송에 대한 애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p> <p>④ 6월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방송에서 투표 참여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캠페인 제작을 검토했으면 한다.</p> <p>⑤ 희망캠페인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입니다’에서 우리 지역의 과학 기술이나 인프라의 발전적 모습이 담겨야 할 것 같은데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인간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있어 주제와 맞지 않는 것 같다.</p> <p>⑥ 시사플러스가 새터민 문제를 다뤘는데 균형 있는 시각 좋았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 위한 방송을 해주길 바란다.</p>	<p>⇒충청권 3사 공동 기획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며 3~4월 중으로 TV 전국기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드 다큐를 준비하고 있음. 뉴스센터에서도 일일 뉴스와 함께 특집 다큐 &lt;백제 3부작&gt;을 추진 중이며 프로모션센터도 대백제전에 맞춰 황산벌 전투를 재현하는 대규모 행사를 맡아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임.</p> <p>⇒앞으로 생활과 밀접한 주제와 지역밀착형 의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2월 1일 방송부터 시민 패널 위치를 토론자 뒤에서 무대 앞 방청객 석으로 이동해 시각적 불편 해소했고 시민 패널도 2월 9일 재위촉 예정. 조명 시설과 진행 개선, 카메라 워킹 변화, 연출 다양화 등도 추진할 계획임.</p> <p>⇒자칫 자사 입장을 방송을 통해 주장하는 듯해서 피해왔지만 제안을 적극 수용해 방송의 날이 있는 9월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시대공감’ 토론 소재로 선택할 계획임.</p> <p>⇒선거일 한 달 이전인 5월쯤 공익광고를 송출할 예정임.</p> <p>⇒2월 3일부터 희망캠페인을 연탄 봉사 등 작은 나눔을 통해 희망찬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교체함.</p> <p>⇒1월 29일 재개발 거부 지역인 삼성 3구역 주민들 입장을 비롯해 2월 5일에는 비정규직인 100%인 회사를 통해 비정규직화 문제 등을 다루는 등 서민 밀착형 소재 발굴함.</p>
-------------------	---	--

기 타	<p>① 아마존의 눈물 일부 미방 사태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원칙 제대로 세우고 경우에 따라 유연한 대응해 달라.</p> <p>② 시청자들이 방송에 대한 불만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답변이나 대응이 소홀한 건 아닌지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길 바란다.</p> <p>③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쳐야 하는 데 지금까지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궁금하다.</p>	<p>⇒이동 시청 편성을 통해 아마존의 눈물과 자체제작 프로그램인 ‘타임워프’를 모두 방송했으나 시청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후 아마존의 눈물을 실시간 방송함.</p> <p>⇒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대한 답변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했으며 보다 자세하거나 기술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기자나 제작진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p> <p>⇒연도별 디지털 전환 계획을 담은 첨부파일 참조바람.</p>
-----	--	---